SPOT
ISSUE

28 Nov. 2025

DAOL 다올투자증권

(352820·BUY·42만원)

하이브

BTS 투어 업사이드 요인 찾기

임도영
엔터 I dy.lim@daolfn.com

● BTS 투어는 횟수, 모객 수 보다는 ATP 상승에서 서프라이즈 기대

2026년 3월 BTS의 음반 발매 및 4월말 투어 개시를 전망한다. 코로나로 취소됐던 <MAP OF THE SOUL> 투어 당시 투어 개시 3개월 전(1/22 일정 발표, 4/11 투어 개시)에 일정을 공지한 바 있어 1월에는 투어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. 12월말 이후부터는 해당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을 전망이다. 블룸버그 보도(10/26)에 따르면 65회 공연, 이 중 북미 공연만 30회 이상이 예정되어있다. 통상 유럽 공연은 한달 간 약 7~8회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 시 북미/유럽 합산 37회 이상의 공연이 예상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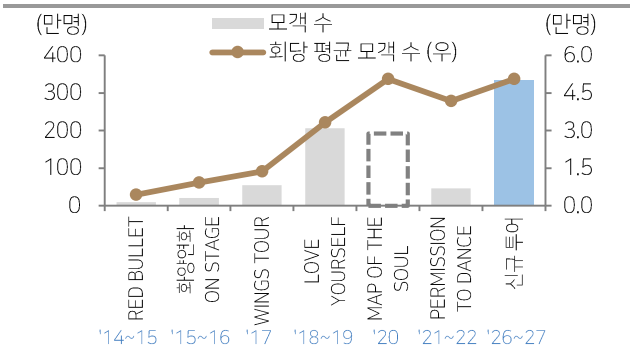
해당 보도 이후 시장은 65회 이상, 300~350만명 수준의 투어를 기대하고 있다. 트와이스 <THIS IS FOR> 투어는 74회 확정에 일본 스타디움 추가 투어 감안 시 80회 미만으로 마무리가 예상되고 있으나 이는 이례적인 수치이다. 최근 메가 IP들의 투어가 60회 내외에서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 시 BTS의 경우 최대 70회 초반 수준까지 가능할 전망이다. 이미 스타디움 투어를 가정하고 있는 만큼 투어 횟수나 모객 수 측면에서의 서프보다는 ATP(평균 티켓 가격) 상승 측면에서 서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.

북미 ATP의 경우 $220 수준까지 상승을 전망한다. 블랙핑크가 이미 직전 투어(BORN PINK, 22.10~23.09)에서 $248를 기록했고, 완전체 대비 수요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제이홉($198), 슈가($218) 솔로 투어에서 이미 $200 이상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. 또한 일본 티켓 가격 인상 기조, 최근 엔하이픈(하이브) 앵콜콘 및 진(BTS) 솔로 투어에서 한국 티켓 최저가도 인상된 점을 감안 시 아시아권에서도 ATP 동반 상승이 기대된다. ATP가 높은 북미 공연 비중이 높고 원달러 환율도 긍정적이다. ATP는 약 27만원까지 상승하며 시장 기대치(약 25만원)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티켓 매출은 약 9,000억원 수준까지 가능할 전망이다.

● 티켓 및 MD 매출 합산 시 1.3~1.4조원의 매출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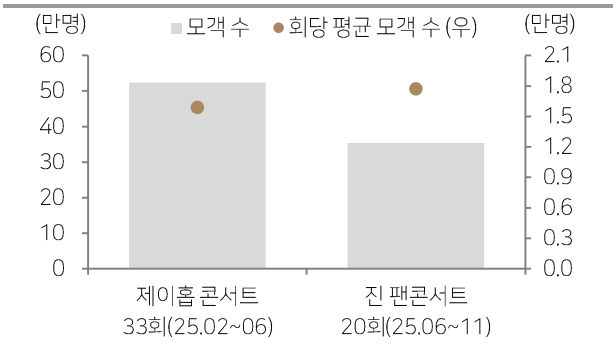
코로나 시기 제한적으로 진행됐던 <PERMISSION TO DANCE ON STAGE> 투어 이후 약 4년만에 재개되는 완전체 투어인만큼 응원봉 리뉴얼을 중심으로 한 공연 MD 매출 성장도 기대된다. 특히 최근 하이브가 MD 품목 다각화, 비공연 지역 및 비공연일 팝업스토어 운영, 국가별 팬덤 특성에 맞춘 한정판 MD 출시 등 과거 투어 시기 대비 적극적인 MD 판매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. 여타 IP 대비 구매력이 높은 BTS 팬덤 특성상 MD 매출 확대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.

Fig. 1: BTS 투어 모객 수 추이 및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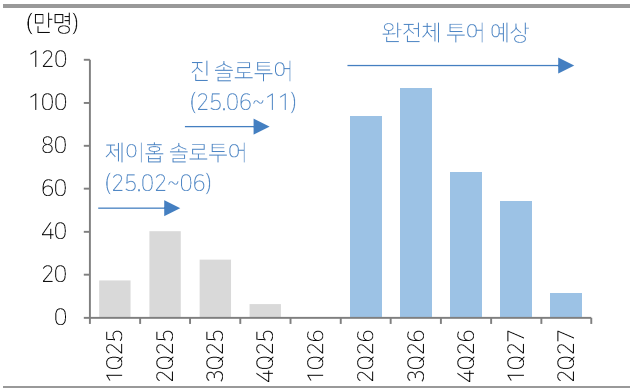
Source: 하이브, 언론보도, 다올투자증권 추정
Note: MAP OF THE SOUL은 코로나로 전면 취소, PERMISSION TO DANCE ON STAGE는 코로나로 제한적 진행

Fig. 2: 군백기 이후 첫 진행된 BTS 제이홉과 진의 솔로 투어 모객 수 및 회당 평균 모객 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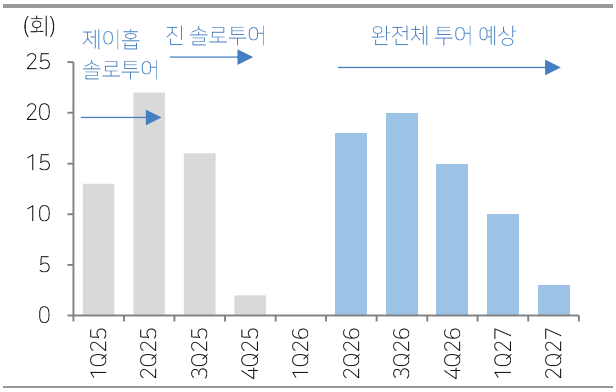
Source: 하이브, 언론보도, 다올투자증권 추정

Fig. 3: BTS 분기별 투어 모객 수 추이 및 전망



Source: 하이브, 언론보도, 다올투자증권 추정

Fig. 4: BTS 분기별 투어 횟수 추이 및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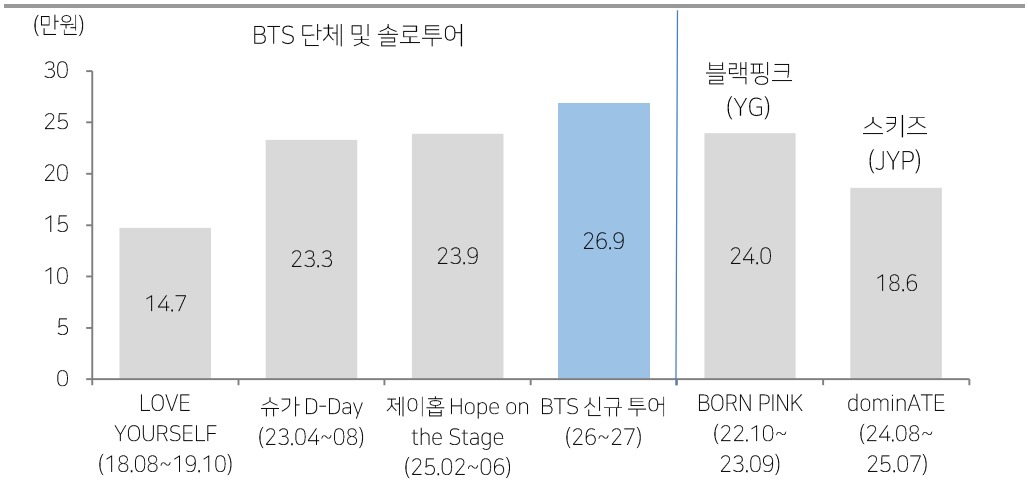
Source: 하이브, 언론보도, 다올투자증권 추정

Fig. 5: BTS 신규 투어 티켓 매출 전망

	횟수	총 모객 (만명)	회당 평균 모객(만명)	티켓 매출 (억원)	ATP (원)	ATP (달러)	ATP (엔)	비고
글로벌	66	333.5	5.05	8,959	268,640			
한국	6	22.5	3.75	396	176,000			-제이홉 솔로 투어(15.4~22 만원), -진 솔로 투어(16.5~22 만원) -엔하이픈(하이브) 2025.10 앵콜콘 (16.5~25.3 만원) 수준 감안
북미	30	165	5.5	5,178	313,845	220		-블랙핑크 BORN PINK 투어 북미 ATP $248 -제이홉 솔로 투어 북미 ATP $198 -슈가 솔로 투어 북미 ATP $218 -솔로보다는 완전체 투어에 대한 수요가 더 높고 YG 가 타사 대비 ATP 가 높은 점을 감안 시 $200~240 수준 전망, $220 가정
유럽	7	38.5	5.5	1,076	279,378	198		-LOVE YOURSELF 투어 기준 유럽 ATP 는 북미 지역의 90% 수준
일본	8	40	5	696	174,100		17,800	-진 솔로 투어 일본 ATP
기타	15	67.5	4.5	1,613	238,920	165		-슈가 및 제이홉 솔로 투어 기준 아시아 ATP 는 북미 지역의 약 67~77% 수준, 75% 가정

Source: 다올투자증권 추정
Note1: 기타 지역은 동남아, 중화권, 오세아니아 등
Note2: 원달러 환율 1Q26(1,445원), 2Q26(1,432원), 3Q26(1,411원), 4Q26(1,448원) 기준

Fig. 6: BTS 단체 및 솔로 투어 ATP 추이



Source: Touring data, 다올투자증권
Note1: 글로벌 ATP에 투어 기간 평균 원달러 환율 적용해 환산
Note2: dominATE 투어는 집계 전인 한국 앵콜콘 제외 기준

Fig. 7: K-POP 메가 IP 월드투어 지역별 ATP 추이

블랙핑크 BORN PINK 투어 (22.10~23.09)						
지역	글로벌	북미	유럽	아시아	라틴 아메리카	오세아니아
공연 횟수	66	19	11	30	2	4
총 티켓 매출(백만달러)	331.8	103.8	34.8	164.5	20.0	8.8
모객 수(만명)	181.5	41.8	20.9	102.6	11.3	4.9
ATP(달러)	182.8	248.2	166.4	160.4	176.0	179.7
스트레이키즈 dominATE 투어 (24.08~25.07)						
지역	글로벌	북미	유럽	아시아	라틴 아메리카	오세아니아
공연 횟수	54	13	8	23	8	2
총 티켓 매출(백만달러)	263.3	76.2	64.4	74.2	41.1	7.4
모객 수(만명)	198.4	49.1	39.1	67.5	36.2	6.4
ATP(달러)	132.8	155.0	164.4	109.9	113.7	115.6
BTS LOVE YOURSELF 투어 (18.08~19.10)						
지역	글로벌	북미	유럽	아시아	라틴 아메리카	오세아니아
공연 횟수	62	21	11	28	2	
총 티켓 매출(백만달러)	246.5	75.6	43.4	119.8	7.7	
모객 수(만명)	193.1	50.7	32.0	101.9	8.5	
ATP(달러)	127.7	149.1	135.6	117.6	92.9	
BTS 슈가 솔로투어 D-Day Tour (23.04~08)						
지역	글로벌	북미	유럽	아시아	라틴 아메리카	오세아니아
공연 횟수	28	11		17		
총 티켓 매출(백만달러)	57.2	32.5		24.7		
모객 수(만명)	32.0	14.9		17.1		
ATP(달러)	178.7	218.3		144.2		
BTS 제이홉 솔로투어 Hope on the Stage (25.02~06)						
지역	글로벌	북미	유럽	아시아	라틴 아메리카	오세아니아
공연 횟수	33	10		21	2	
총 티켓 매출(백만달러)	84.7	28.9		49.7	6.1	
모객 수(만명)	50.4	14.6		32.5	3.3	
ATP(달러)	168.1	198.4		152.8	184.4	

Source: Touring Data, 다올투자증권
Note: dominATE 투어는 집계 전인 한국 앵콜콘 제외 기준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·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.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. 본 자료는 '나눔스퀘어'와 '아리따 글꼴'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

투자등급 비율

BUY : 89.4%	HOLD : 10.6%	SELL : 0.0%

투자등급 관련사항

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
· BUY: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15% 이상.
· HOLD: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5% 이상~ +15% 미만.
· REDUCE: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5% 미만.
· SUSPENDED: 기업가치 전망에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커진 경우, 분석 잠정적 중단. 적정주가 미제시.

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
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,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
· Overweight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· Neutral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· Underweight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

주)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